본문 : 출애굽기 2 장 11-15a
제목 : 모세의 광야학교

1. 모세의 유아 청소년기

다리미질을 가끔 하시나요? 주름이 잡힌 옷을 펼 때 다리미질을 하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리미질과 같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상황 설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절과 구절 사이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됐거나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센텐스와 센텐스 사이의 주름을 잘 펴는 다리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입니다-행간의 의미. 모세의 이야기도 다리미질이 좀 필요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갈대 상자에서 건져진 그가 어느 정도 컸다는 말이 있은 후, 곧 바로 어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어른이 된 나이가 40 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이야기를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자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그럼 모세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한 번 상상해 볼까요? 요즘 시대라면 영국의 왕실에 우리가 입양되어 키워진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그 궁전 안에서 배고프거나 부족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옷은 최고급 브랜드를 입을 거구요, 음식도 최고의 쉐프들이 요리한 음식으로 배불리 먹을 겁니다. 게임기 콘솔도 X-Box, Play Station, Nintendo Switch 등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임 팩도 NBA 2K27 이나 수퍼마리오의 모든 게임들을 갖고 싶은대로 가질 수 있겠죠. 대신에 꼭 받아야 할 교육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긴 합니다. 에티켓 교육, 철학 교육, 음악, 미술, 승마, 펜싱 등등 다양한 교육 받으며 왕이 될 자격을 갖춰가겠죠. 모세도 왕자로서 궁전에서의 그 당시 최고의 삶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 없는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겁니까?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커 왔던 것이죠. 아마도 그의 엄마가 그를 유모로 키우는 시기에 그에게 알려주고 가르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히브리 남자 아이였기 때문에 태어난 지 8 일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왕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느꼈을 것이고 그의 정체성을 놓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정체성을 정리한 시간이 40 년이 걸렸던 것이죠.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40 년 정도 내가 준비되면 우리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2. 40 살 모세

40 살이 되자 그는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히브리 사람 한 명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고 있자 그의 마음 속에 의로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만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궁전 안에서 그냥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편안한 삶을 살았을텐데 굳이 고통 당하는 히브리 사람의 일에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살인이 발각이 되어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혈질인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집트 사람을 혼내 준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앞섰습니다. 파라오가 그를 찾을 때 왕자로서 당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의 소심함이죠. 그가 소심했던 이유는 왕자들 사이에서 히브리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이 있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40 살이 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 보리라 생각했던 그의 계획은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의 신분이 바껴버립니다.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40 년을 준비해 왔는데 그는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막론하고 40 살이 되면 직장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내 분야에 소리들을 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나요? 40 살이 그런 나이입니다. 이삼십 대 젊은이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준비해 가시면 40 대엔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0-30 대에는 삶의 원칙들을 세워가는 시간들입니다. 20 대에 인생의 원칙을 세워 놓지 않으면 40 대가 되면 그 기반이 튼튼하지 않아 흔들리게 됩니다. 20 대에는 여러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칙, 인생의 큰 방향, 재정에 대한 원칙, 인간관계에 대한 원칙들을 세우고 실험해 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때에는 그냥 열심히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놀아본 아이들은 인생이 재밌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살만하고 흥미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때에 깨달아야 해요. 우리 일생의 시간을 열매 맺는 나무에 비한다면 청소년 시기는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죠.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면서 놀지는 마세요. 할 것들은 하면서 최대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잘 놀아야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멍때리며 보내는 것은 노는 게 아니예요. 쇼츠 그만 보시고 바깥으로 나가서 노세요. 그게 어린이 여러분이 40 살을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3.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40 살이 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모세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마저 실패한 것일까요? 40 살이 되어 뭔가 히브리 민족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 보리라던 그의 계획은 한 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실패한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풋볼 공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 때문에 인생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된다면 인생에 긴장감이나 thrill 이 있을 수 없죠.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thrill 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며 20 대 때부터 생각해 온 것이 있습니다. 내가 40 살이 되면 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리라. 20 대 초반부터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40 살이 되면 뭔가 확실한 나의 사역을 해가기 위해 준비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 휴학하고 8 개월간 중국에 나가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저의 지금 중국어의 8 할은 그때 배운 것입니다. 청년시절 저는 단기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롱텀 선교사로 부르시는 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 대는 인생을 길게 보고 여러 실험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교사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인 중국의 서북쪽으로 가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이후에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 사역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식적인 신학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도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신학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한 단계 한 단계 제 사역을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에 곧바로 나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풀타임 목회를 경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목사로 3 년 반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덧 40 살이 되었죠.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흔쾌히 파송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처음 품었던 선교지인 중국에 나가자고 하니 아내가 중국 빼고는 다 가겠다고 하더군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교단의 총회 선교부에서 요르단 선교사로 갈 의향이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더라구요. 같은 무슬림이고 가장 어려운 중동이니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물었는데 아내가 요르단으로 가자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일이 술술 풀려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가 요르단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르단 정부가 IS 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땅으로 우리는 보낼 수 없다고 선교지를 바꾸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간절히 기도했고, 원래 가고자 했던 중국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 나가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대로 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다 써놓고 산책하고 돌아와 보니 설교문이 다 날아가 버렸더라구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4. 광야학교

40 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던 모세가 갑자기 광야학교로 전학을 간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그마치 40 년 동안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은 이제 이 광야에서는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40 이 벌써 지나고 제 나이는 이제 70, 80 을 향해 가는데 저는 뭔가요?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모세는 이제 40 살을 시작으로 80 살이 될 때까지 깍이고 깍이면서 이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80 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셨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은 은퇴 이후에 시작됩니다. 저도 은퇴 이후의 삶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발판이 되어 미래의 삶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40 년 동안 양을 치는 경험을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광야의 삶이 있었기에 그는 평생의 삶을 바친 그곳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이곳 로체스터가 광야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싸인입니다. 광야학교를 잘 통과하시고 이 학교를 잘 졸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그분의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가 너무 되고 싶었고, 중국어, 중국 역사, 중국 문화를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파송된지 3 년 만에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사역지를 800 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로 옮겨서 한인 목회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한인교회 담임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좌충우돌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1 년 만에 중국에서 추방을 겪으면서 광야의 삶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모세가 궁전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저희 가족을 광야로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추방 선교사에게 주는 1 년의 안식년을 이용해 미국 켈리포니아로 유학을 오게 되었죠. 켈리포니아의 삶은 생각보다 건조하고 척박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고정적이지 않은 후원금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런 곳에서도 우리 가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체험하며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20 대의 삶에 저와 아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 훈련을 잘 통과했기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지도자로 쓰임 받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세례 요한, 예수님 등 많은 성경의 지도자들이 광야학교를 통과했지요.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싸인입니다. 부디 광야의 삶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